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1년 6월 생산은 전월대비 1.6% 증가(전년동월대비 6.7%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6.7%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2.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2.1%).
- 서비스업 생산은 수도·하수·폐기물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 도소매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함(전년동월대비 +4.9%).

◆ 2021년 6월 소비는 전월대비 1.4%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0.2%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0%)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5.8%), 의약품 등 비내구재(1.0%)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4%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6%).
-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3.3%) 투자가 늘었으나,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1.5%)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0.0%).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2.0%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15.2%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	2019				2020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6월	5월p	6월p
생산	전산업	1.5	1.0	-1.2	-0.6	1.1	1.0	0.6	-1.8	-3.0	2.8	1.6	3.9	0.0(7.0)	1.6(6.7)
	광공업	1.4	0.4	-0.4	-1.9	1.9	1.8	0.7	-0.6	-6.5	6.0	2.9	8.2	-1.0(14.9)	2.2(11.9)
	제조업	1.3	0.5	-0.3	-2.1	2.1	1.8	0.9	-0.6	-6.9	6.4	3.1	8.4	-1.2(15.3)	2.3(12.1)
	건설업	-4.2	-2.3	-4.1	2.6	0.2	-2.2	1.0	-0.7	-2.9	-2.8	2.5	0.1	-3.0(-6.9)	2.0(-3.1)
	서비스업	2.3	1.4	-2.0	0.3	0.5	0.7	0.4	-2.9	-1.3	2.0	0.9	1.8	-0.4(4.2)	1.6(4.9)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5	0.2	-0.1	2.0	-5.7	5.9	-1.1	0.9	2.6	-1.8(3.1)	1.4(1.6)
투자	설비투자	-3.6	-5.7	6.0	-3.4	2.1	2.0	3.4	-1.0	2.7	2.2	0.8	5.7	-2.9(10.9)	-0.2(10.0)
물가		1.5	0.4	0.5	-0.4	0.4	-0.1	0.3	0.5	-0.8	0.6	0.1	0.0	-0.1(2.4)	0.2(2.6)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7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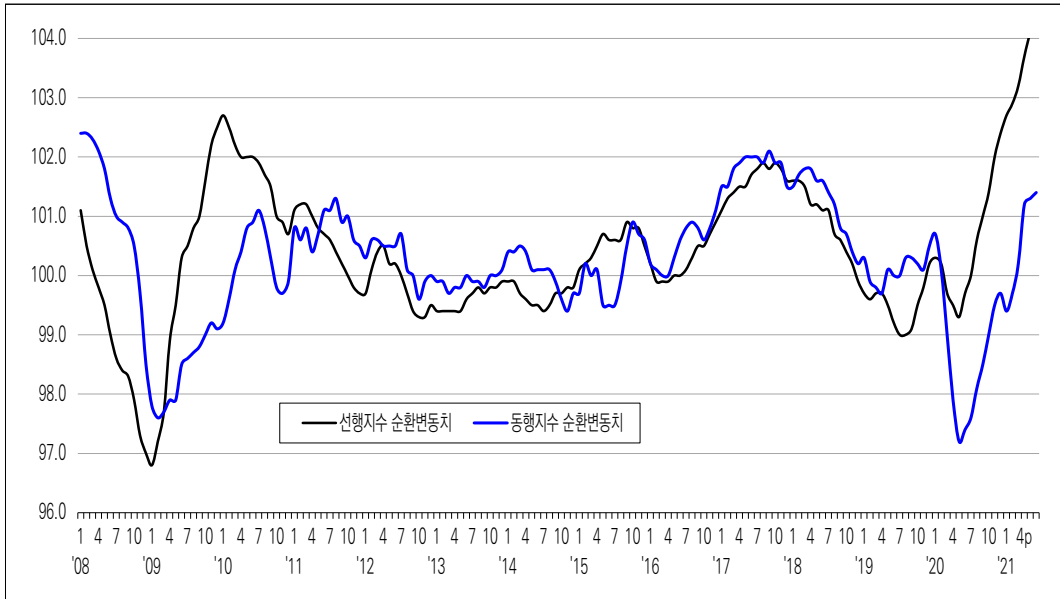
◆ 2021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1% 하락)

- 2021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2015=100)로 전월대비 0.2% 상승함(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오락·문화(1.9%), 교통(1.5%), 가정용품·가사서비스(1.5%), 음식·숙박(0.4%), 기타 상품·서비스(0.2%)는 상승, 주류·담배, 의류·신발, 보건, 통신, 교육은 변동 없으며, 주택·수도·전기·연료(-1.3%), 식료품·비주류음료(-0.1%)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2%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2% 하락하여 전월대비 0.1% 하락함.

◆ 2021년 6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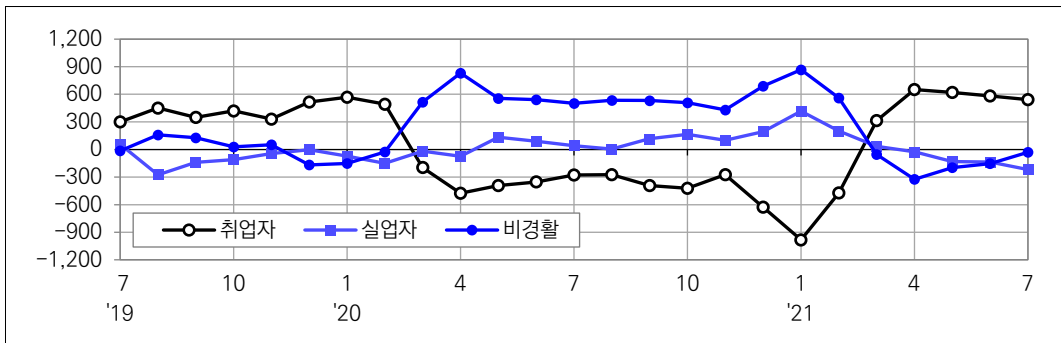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는 소폭 증가

○ 2021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4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소폭 축소됨(전월대비) 2만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7월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 전환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체 노동력조사 종사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감. 건설업은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도소매는 감소폭이 확대되고 숙박음식은 감소로 전환됨. 운수창고와 보건복지는 증가세를 이어감.
- (연령별) 7월 20대와 40대는 실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비경황 인구 감소폭이 축소됨. 취업자는 5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50대 취업자는 제조업 및 운수창고업에서 증가로 전환하고 도소매 및 협회단체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7월은 일용직의 감소폭 확대가 이어짐. 일용직은 건설업이 감소로 전환되고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상용직은 제조업, 운수창고,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일시휴직자) 7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17만 9천 명 감소하여 기저효과 완화에 따라 감소세가 둔화되는 추세임. 전월대비로는 1만 8천 명 증가함.
- (실업자) 7월 실업자는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감소세를 키워가며 전년동월대비 21만 8천 명 감소함. 전월대비 실업자는 11만 9천 명 감소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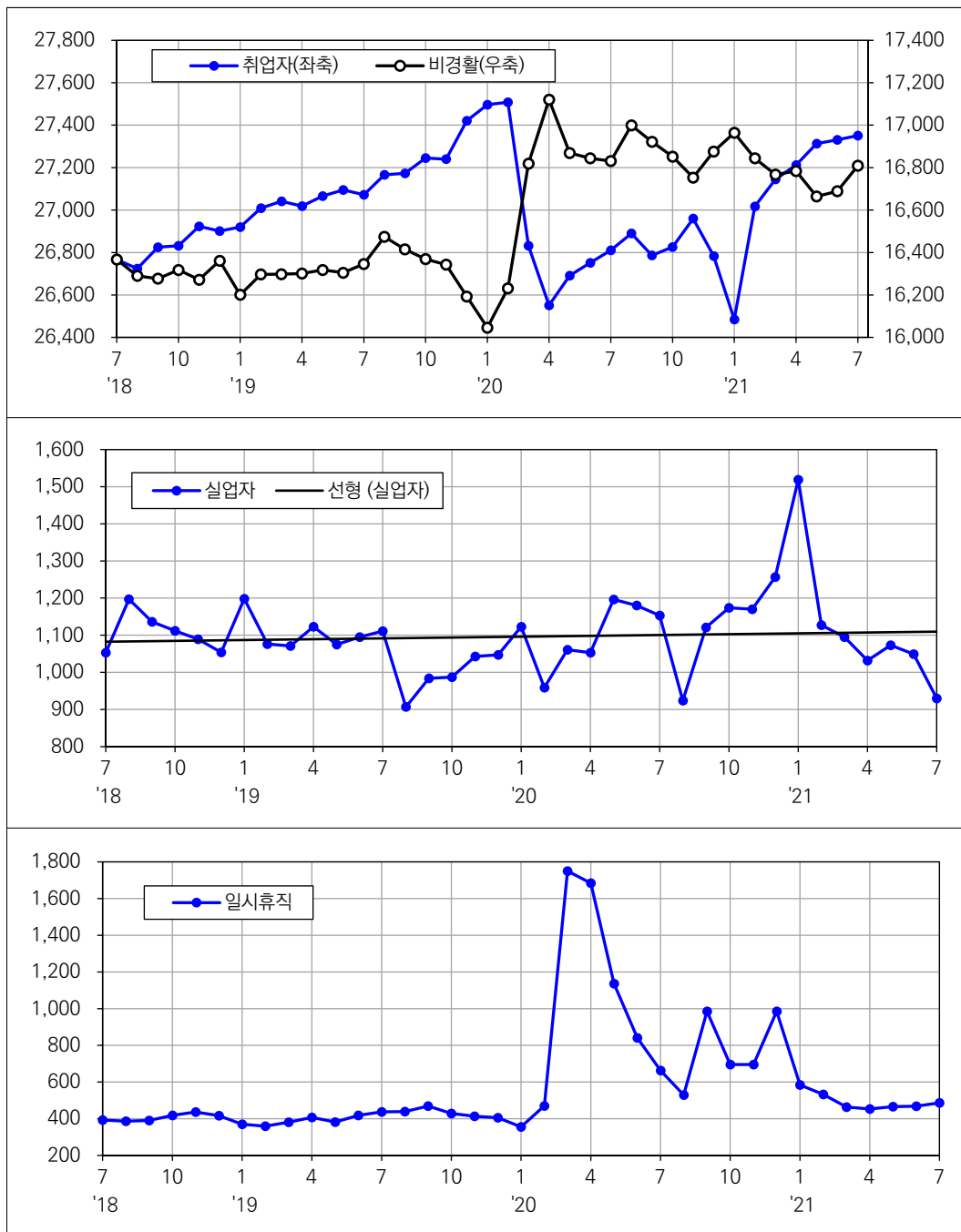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7월은 50대에서 고용이 개선됨. 그 외 연령대에서는 실업자가 줄고 비경황이 늘어남.

- 20대와 40대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비경황 감소폭은 축소됨.
- 50대는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실업자 감소폭도 확대됨. 취업자는 제조업 및 운수창고업에서 증가로 전환하고 도소매 및 협회단체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 반면, 60세 이상은 취업자 증가폭의 축소와 비경황 증가폭의 확대가 3개월째 지속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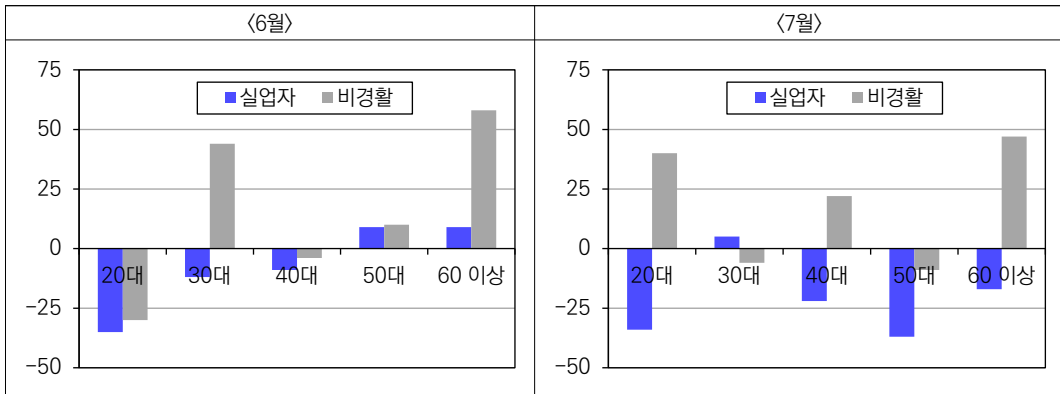
	15~19세				20대				30대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취업자	29	23	17	(-20)	109	186	166	(-19)	-69	-112	-122	(-7)
실업자	6	11	1	(-9)	-30	-76	-99	(-34)	-38	-43	-29	(5)
비경황	-189	-187	-163	(24)	-60	-91	-60	(40)	-45	5	5	(-6)
실업률	1.4	4.2	-0.6	(-3.1)	-1.0	-2.2	-2.6	(-0.7)	-0.6	-0.7	-0.4	(0.0)
고용률	1.7	1.5	1.3	(-0.8)	1.6	2.7	2.5	(-0.2)	0.6	0.0	-0.1	(-0.1)

	40대				50대				60세 이상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취업자	-6	12	11	(-4)	100	74	109	(51)	455	399	361	(17)
실업자	-5	-14	-33	(-22)	-54	-25	-54	(-37)	-9	12	-3	(-17)
비경황	-64	-75	-53	(22)	-62	-66	-65	(-9)	223	261	305	(47)
실업률	0.0	-0.2	-0.5	(-0.4)	-0.8	-0.4	-0.8	(-0.5)	-0.4	0.0	-0.2	(-0.4)
고용률	0.6	0.8	0.8	(0.0)	1.3	1.0	1.4	(0.6)	1.4	0.8	0.6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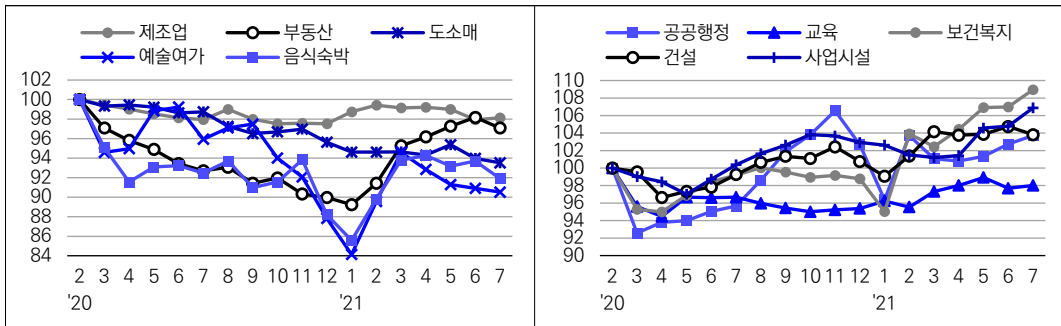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도소매, 음식숙박, 예술여가, 부동산, 건설이 감소함. 제조업, 교육은 정체 상태임. 보건복지, 공공행정, 사업시설은 개선되는 추세임.
- 공공행정, 보건복지, 건설, 사업시설은 작년 2월 수준 이상을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3	16	12	-14	19	7	12	0.8
광업	-1	-1	-1	0	0	-1	-1	-8.3
제조업	19	-10	6	-10	-47	9	-48	-1.1
전기·가스·증기	-5	-5	-7	2	0	0	2	3.1
수도·원료재생	20	17	21	1	1	5	7	4.2
건설업	132	140	92	2	18	-19	1	0.0
도매 및 소매업	-136	-164	-186	38	-50	-16	-28	-0.8
운수 및 창고업	91	89	121	3	10	33	46	2.9
숙박 및 음식점업	4	12	-12	-25	12	-41	-54	-2.5
정보통신업	29	57	46	0	23	-19	4	0.4
금융 및 보험업	25	44	36	-4	9	-16	-11	-1.3
부동산업	14	25	24	6	5	-6	5	0.9
전문·과학·기술	58	87	57	0	25	-15	10	0.8
사업시설관리지원	101	81	87	42	3	28	73	5.4
공공행정·사회보장	83	87	91	6	16	11	33	2.9
교육서비스업	42	22	27	17	-23	6	0	0.0
보건 및 사회복지	241	208	237	59	2	47	108	4.4
예술·스포츠·여가	-39	-43	-28	-8	-2	-2	-12	-2.5
협회·단체·수리·기타	-45	-55	-50	6	15	2	23	2.0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5	-19	-25	-2	-7	-1	-10	-11.0
국제 및 외국기관	-4	-4	-5	0	0	-2	-2	-1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7월은 전년동월대비 일용직의 감소폭이 확대됨.

-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확대됨. 제조업, 운수창고,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은 증가폭이 축소됨.
- 임시직은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도소매에서 감소 전환함.
- 일용직은 건설업이 감소로 전환되고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교육, 예술스포츠, 협회단체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355	321	361	55	13	77	144	1.0
임시직	307	360	352	-13	88	3	79	1.7
일용직	-20	-114	-170	-4	-49	-31	-84	-6.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7	-84	-71	-17	-31	1	-47	-3.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3	113	87	23	43	-19	48	1.1
무급가족종사자	-10	-15	-16	17	-9	-5	3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농림어업	-7	-4	-6	2	-1	3	-3	-2	-3	-7	-15	-12	12	33	32
제조업	46	9	18	-30	-5	-8	-7	-23	-12	-10	-12	-13	8	4	3
건설업	59	65	66	-13	8	29	61	29	-44	14	8	6	4	26	30
도소매	-63	-87	-88	20	21	-2	-37	-40	-39	-17	-23	-27	-5	1	7
운수창고	38	48	62	13	4	13	13	14	4	2	-3	-4	25	27	44
음식숙박	-49	-54	-24	37	79	33	-17	-39	-52	-2	3	6	23	22	22
정보통신	39	56	38	8	16	17	0	1	4	-2	-4	-2	-17	-12	-10
금융보험	-2	-1	-11	20	40	43	-3	-2	-2	1	-1	-1	9	8	8
부동산	14	20	19	5	7	7	0	0	-1	-10	-9	-8	13	14	11
전문과학기술	60	80	57	10	17	13	2	4	2	-7	-4	-5	-1	-5	-5
사업관리지원	83	65	50	-6	11	22	13	-4	10	-6	-7	-5	14	14	8
공공행정	67	66	64	19	24	26	-3	-3	1	-	-	-	-	-	-
교육서비스	5	-12	2	62	38	42	-1	-2	2	-3	-5	-4	-29	-5	-22
보건복지	87	84	97	168	135	154	-9	-8	-7	-2	1	3	-4	-5	-8
예술스포츠	1	3	21	9	0	-3	-29	-27	-16	-10	-11	-9	-6	-5	-15
협회단체	-28	-20	-10	-5	-13	-17	-5	-15	-15	-8	-3	4	3	-2	-14
가구 내 고용	1	1	1	-7	-20	-19	4	3	-1	-1	0	0	-3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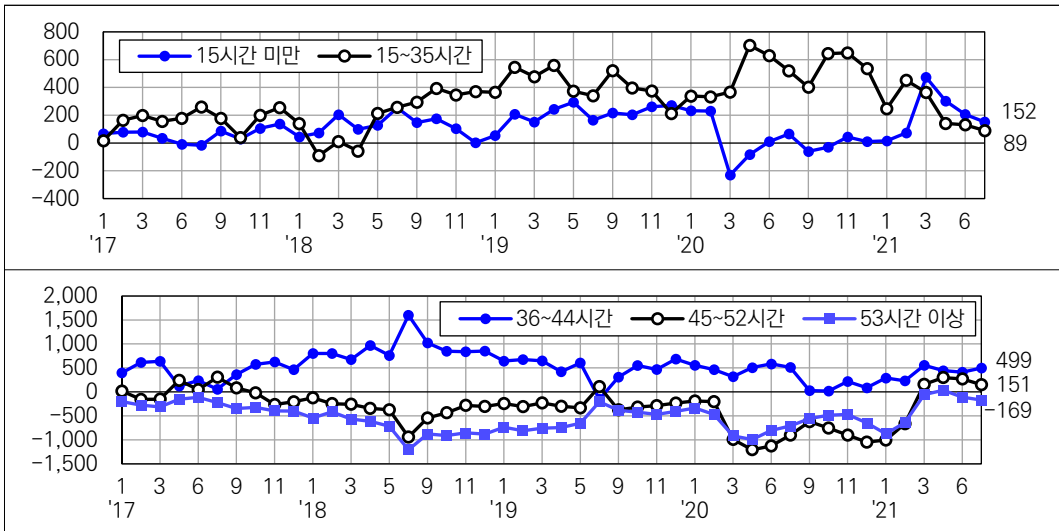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3시간으로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임.

— 주로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이 감소(-0.9%p)하고 36~44시간에서 증가(+0.9%p)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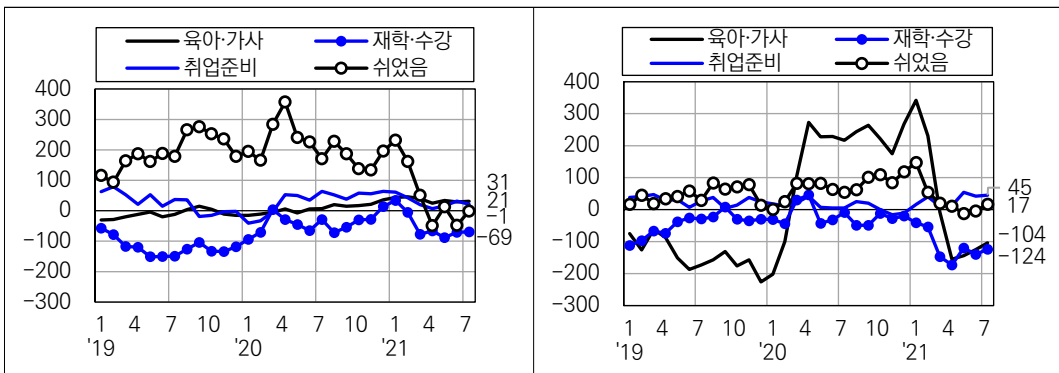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7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만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6월 -15만 4천 명)됨.

— 남성은 쉬었음의 감소폭이 축소됨. 여성은 육아·가사에서의 감소폭 축소가 이어지고 쉬었음이 증가로 전환함.

[그림 6] 성별(남자: 좌, 여자: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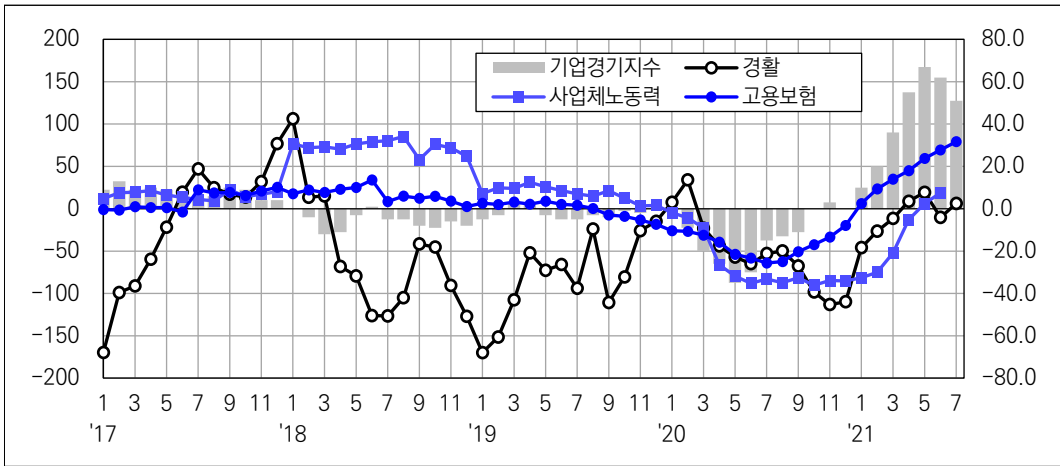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 전환,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을 유지

○ 2021년 7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6천 명 증가하며 증가 전환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의 확대가 지속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도 증가폭이 확대됨. 피보험자는 자동차,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9천 명 증가하여 고용이 소폭 늘어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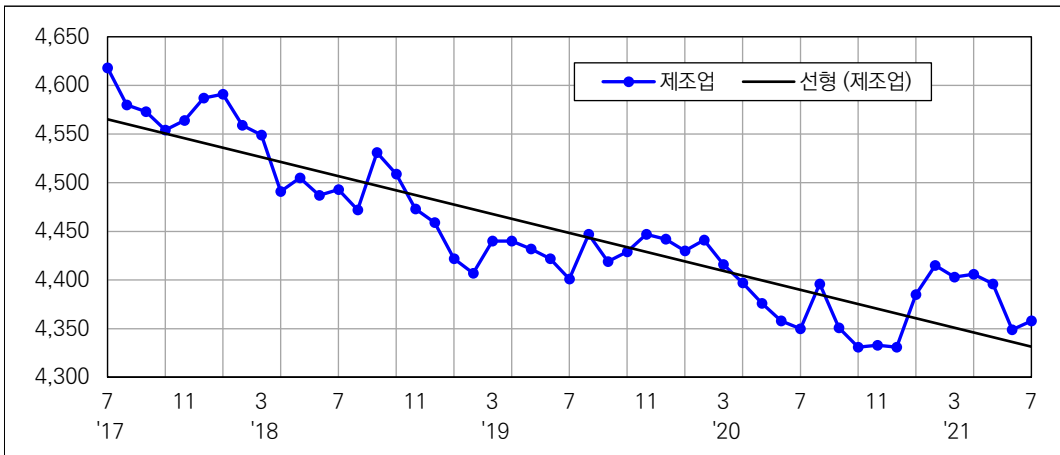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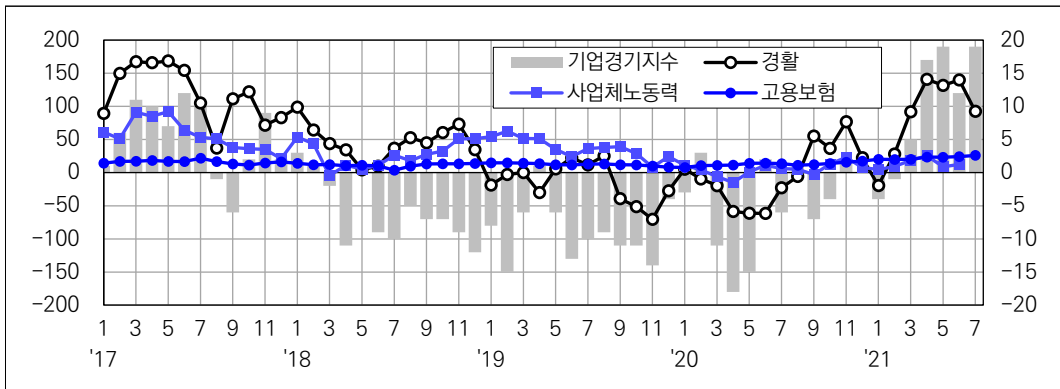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7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기업경기지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세를 유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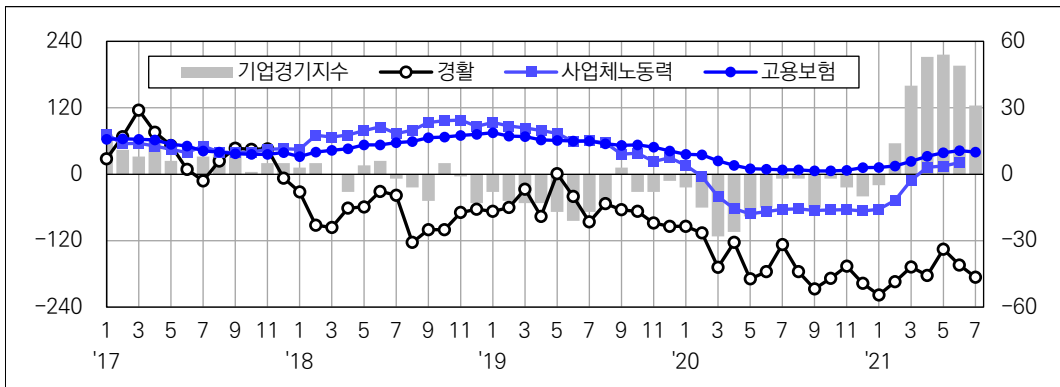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7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전월 수준을 유지함.

- (도소매) 2개월째 감소폭이 확대됨. 7월은 주로 임시직이 감소로 전환한 영향임.
- (운수창고) 상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확대됨. 성별로는 남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증가로 전환됨.
- (숙박음식) 경찰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어 모든 고용 지표가 감소를 나타냄.
- (보건사회복지) 상용·임시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연령별로 20대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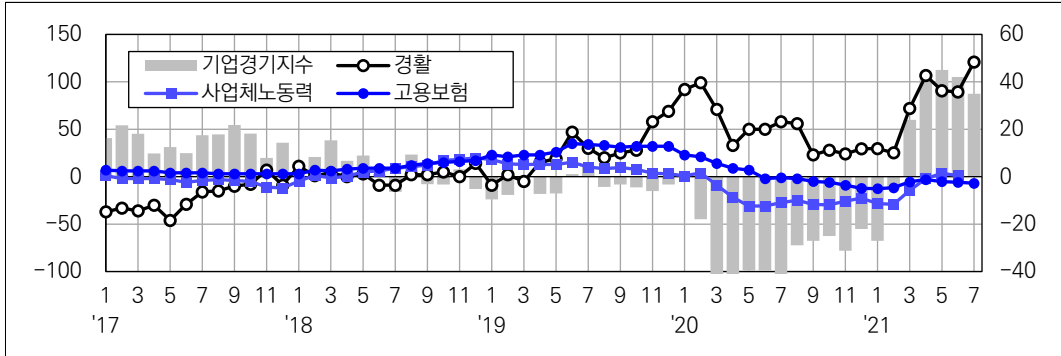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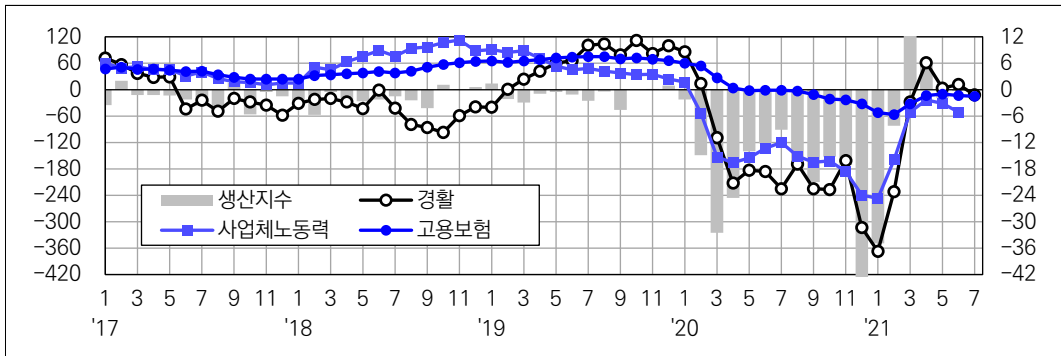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2]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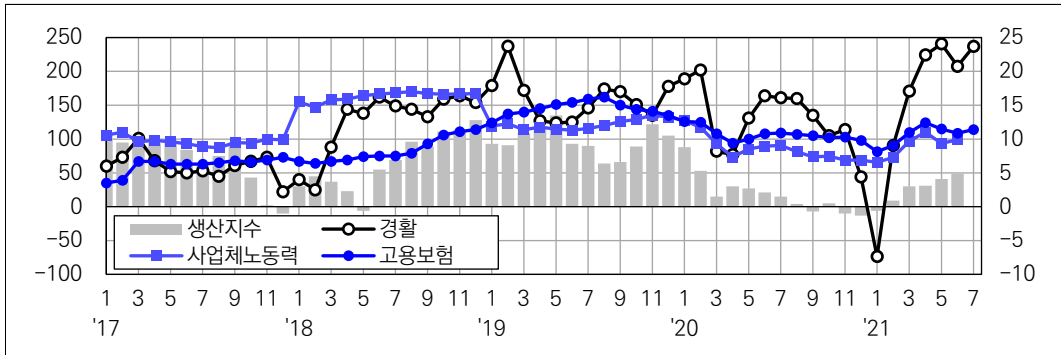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3] 보건업, 사회복지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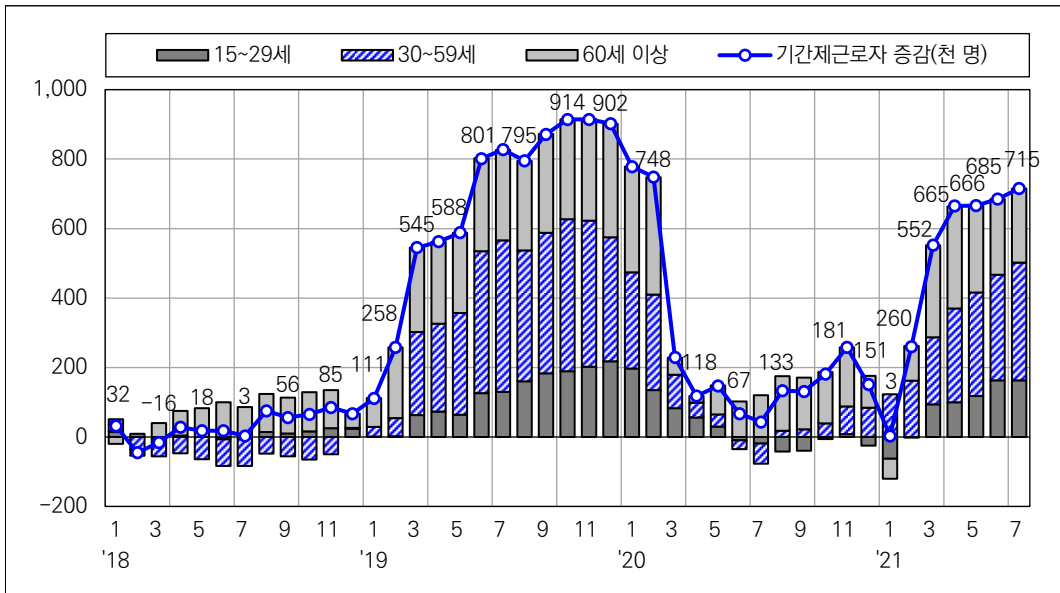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1년 7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71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기간제는 4월 이후 60세 미만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60세 이상은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임.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1년 5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0% 증가

- 2021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1만 8천 원(4.0%)임.
 - 2021년 5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59만 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69만 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확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전년 기저효과와 제조업 등에서의 초과급여의 증가 등의 영향,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에서 특별급여 증가 등의 영향임.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둔화는, 전년에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1년 5월에는 건설업 임금상승폭 둔화와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임.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근로자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5월	5월	1~5월	5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3.3)	3,376 (5.3)	3,490 (3.4)	3,527 (1.1)	3,524 (0.5)	3,287 (1.2)	3,666 (4.0)	3,418 (4.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2.6)	3,592 (5.1)	3,702 (3.1)	3,719 (0.4)	3,708 (-0.3)	3,863 (4.2)	3,595 (4.2)	
	정액급여	2,764 (3.6)	2,891 (4.6)	3,010 (4.1)	3,077 (2.2)	3,062 (2.2)	3,039 (1.7)	3,154 (3.6)	
	초과급여	190 (0.6)	197 (3.7)	202 (2.7)	200 (-0.9)	197 (-1.7)	196 (-7.8)	204 (3.8)	216 (10.4)
	특별급여	464 (-2.2)	504 (8.5)	490 (-2.8)	441 (-9.9)	450 (-13.8)	217 (-11.3)	505 (12.2)	232 (7.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5.1)	1,428 (5.5)	1,517 (6.2)	1,636 (7.8)	1,612 (8.2)	1,640 (9.0)	1,681 (4.3)	1,698 (3.5)	
소비자물가지수	103.0 (1.9)	104.5 (1.5)	105.1 (0.4)	105.7 (0.5)	104.7 (0.7)	104.7 (-0.3)	107.5 (1.7)	107.5 (2.7)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0.1	1.6	2.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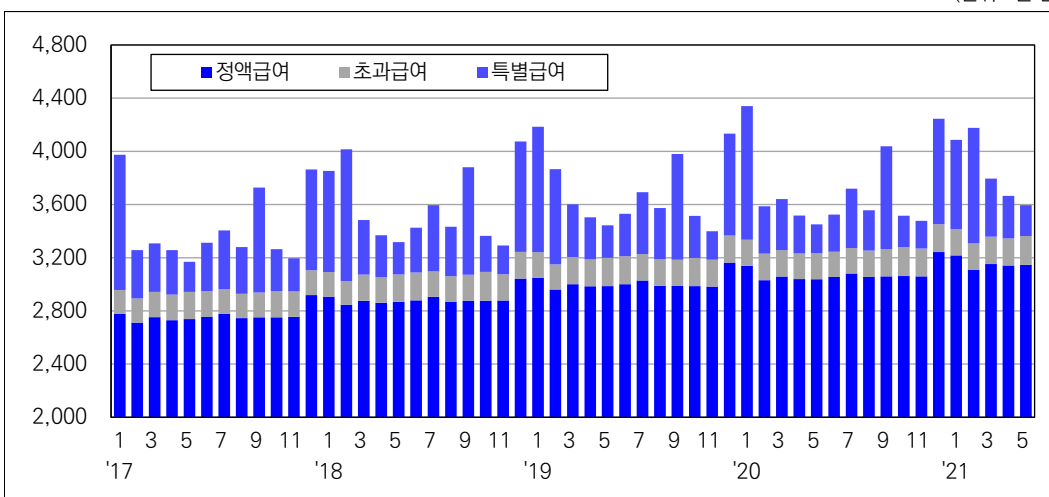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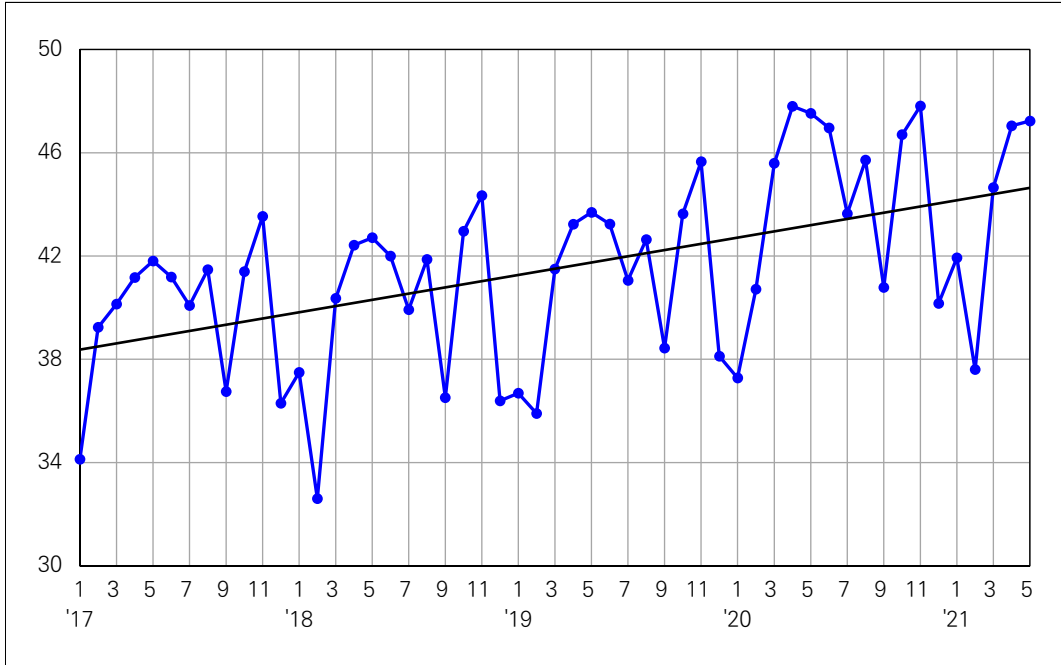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5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폭 확대

- 2021년 5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9%, 3.9%임.
 -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4.0% 증가함.
 -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3.4%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둔화됨.
 - －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1~5월 평균 5.2%(2020년 동 기간 -4.6%)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성과급이 축소되었던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 성과급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임. 동 기간 중소기업의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의 성과급 증가 영향으로 3.6%(2020년 동 기간 0.8%) 상승함.

◆ 2021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2%)과 교육서비스업(-0.6%)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1년 5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09만 7천 원)이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3만 7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65만 4천 원), 정보통신업(448만 4천 원) 순으로 나타남.

– 부동산업(8.4%)의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7%)으로 나타남.

○ 2021년 5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만 5천 원)이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4만 4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57만 8천 원) 순으로 평균임금(341만 8천 원)과 큰 차이를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5월	5월	1~5월	5월
전 산업	3,376 (5.3)	3,490 (3.4)	3,527	3,524	3,287	3,666 (4.0)	3,418 (4.0)
광업	3,835 (3.3)	3,977 (3.7)	4,325	4,217	4,219	4,323 (2.5)	4,366 (3.5)
제조업	3,930 (6.5)	4,017 (2.2)	3,990	3,994	3,566	4,212 (5.5)	3,767 (5.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2.5)	6,502 (1.0)	6,733	6,153	5,399	6,154 (0.0)	5,337 (-1.2)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6.5)	3,506 (6.6)	3,888	3,737	3,627	3,950 (5.7)	3,829 (5.6)
건설업	2,784 (6.1)	2,951 (6.0)	3,032	3,042	2,937	3,070 (0.9)	3,012 (2.6)
도매 및 소매업	3,214 (5.4)	3,372 (4.9)	3,423	3,407	3,217	3,526 (3.5)	3,357 (4.3)
운수 및 창고업	3,357 (6.4)	3,476 (3.5)	3,530	3,431	3,193	3,610 (5.2)	3,372 (5.6)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8.1)	1,875 (6.7)	1,879	1,882	1,827	1,884 (0.1)	1,865 (2.1)
정보통신업	4,277 (3.8)	4,463 (4.3)	4,613	4,736	4,380	4,949 (4.5)	4,484 (2.4)
금융 및 보험업	6,026 (5.6)	6,236 (3.5)	6,526	6,739	5,923	7,344 (9.0)	6,097 (2.9)
부동산업	2,600 (6.3)	2,755 (6.0)	2,848	2,802	2,685	2,948 (5.2)	2,912 (8.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5.9)	4,901 (3.0)	4,871	4,816	4,515	4,926 (2.3)	4,654 (3.1)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5.5)	2,332 (5.9)	2,411	2,394	2,358	2,468 (3.1)	2,444 (3.6)
교육서비스업	3,397 (2.5)	3,474 (2.3)	3,366	3,447	3,179	3,423(-0.7)	3,160(-0.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4.8)	2,960 (5.8)	2,942	2,930	2,888	2,981 (1.7)	2,952 (2.2)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84 (6.8)	2,819 (5.0)	2,873	2,846	2,682	2,953 (3.7)	2,834 (5.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01 (7.2)	2,517 (4.8)	2,563	2,525	2,460	2,669 (5.7)	2,578 (4.8)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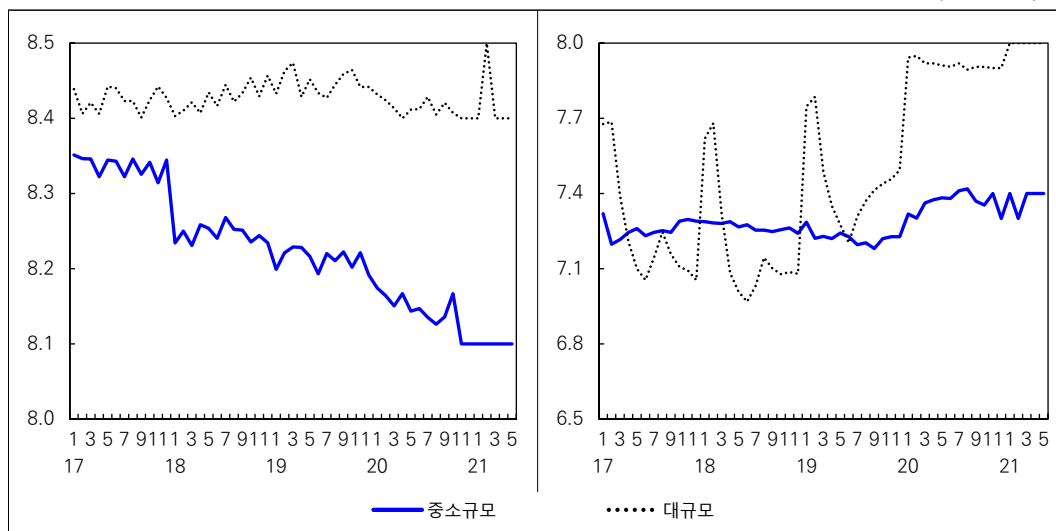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19일로 동일)

- 2021년 5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9시간 증가함.
 -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전년과 동일함에도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기저효과 등으로 보임.
- 2021년 5월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1.7시간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유지,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큼.
- 중소기업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1.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시간 증가,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2시간으로 1.8시간 증가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5월	5월	1~5월	5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60.1(-1.8)	157.6(-3.3)	150.0(-10.5)	157.4(-0.1)	151.6(1.1)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7.6(-2.1)	164.5(-3.7)	156.3(-11.5)	164.4(-0.1)	158.2(1.2)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9.8(-1.7)	156.9(-3.3)	148.8(-11.2)	156.7(-0.1)	150.0(0.8)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7.8(-9.3)	7.6(-12.6)	7.5(-17.6)	7.7(1.3)	8.2(9.3)
	비상용 근로시간	99.2(-6.1)	95.4(-3.8)	96.1(0.7)	94.5(-1.2)	94.7(-1.7)	95.9(1.5)	96.3(1.7)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0.5)	162.8(-0.8)	160.5(-2.1)	151.4(-9.9)	160.6(0.1)	153.2(1.2)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63.9(-1.4)	161.5(-3.0)	152.3(-11.2)	161.6(0.1)	154.2(1.2)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0.0)	153.0(-1.2)	150.5(-3.0)	141.2(-11.5)	150.6(0.1)	142.7(1.1)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0.9(-4.4)	10.9(-4.4)	11.1(-8.3)	11.0(0.9)	11.5(3.6)
	비상용 근로시간	89.2(-1.2)	104.9(17.6)	125.2(19.4)	125.0(27.3)	118.2(31.3)	127.2(1.8)	120.8(2.2)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5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광업(176.5시간)이 가장 길고, 교육서비스업(127.2시간)이 가장 짧음.

- 2021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76.5시간)이며,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67.1시간), 제조업(164.8시간), 부동산업(163.9시간)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27.2시간)이며, 다음으로 건설업(129.3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43.9시간) 순임.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7.4시간)이고, 부동산업(-2.5시간)과 교육서비스업(-2.3시간)은 근로시간 감소가 컸던 것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5월	5월	1~5월	5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60.6	158.0	150.2	157.9(-0.1)	151.9(1.1)
광업	176.6(0.5)	175.7(-0.5)	181.2	177.0	171.0	179.3(1.3)	176.5(3.2)
제조업	177.1(-1.5)	175.9(-0.7)	172.7	170.1	157.4	171.4(0.8)	164.8(4.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63.7	161.2	153.1	160.7(-0.3)	155.9(1.8)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0.4)	178.6(0.4)	176.5	173.2	168.5	173.9(0.4)	167.1(-0.8)
건설업	138.5(-2.4)	136.3(-1.6)	136.9	135.9	130.3	133.6(-1.7)	129.3(-0.8)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0.2)	163.8	160.9	154.6	161.0(0.1)	155.2(0.4)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59.0	156.9	150.8	157.0(0.1)	152.8(1.3)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49.7	147.9	144.1	144.6(-2.2)	143.9(-0.1)
정보통신업	161.6(0.4)	163.9(1.4)	163.8	160.8	150.6	160.8(0.0)	151.7(0.7)
금융 및 보험업	160.9(0.2)	161.5(0.4)	162.1	159.3	149.3	159.6(0.2)	149.4(0.1)
부동산업	178.9(-3.2)	176.4(-1.4)	173.2	170.1	166.4	169.2(-0.5)	163.9(-1.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0.2)	161.4(0.6)	161.7	159.2	149.3	159.0(-0.1)	149.9(0.4)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61.7	159.5	152.8	159.4(-0.1)	154.1(0.9)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36.6	132.0	129.5	133.9(1.4)	127.2(-1.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58.6	155.4	149.6	154.9(-0.3)	148.9(-0.5)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49.7	147.0	144.8	148.1(0.7)	147.6(1.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60.3	156.9	153.2	159.1(1.4)	153.1(-0.1)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8건
 - 7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동월 건수(14건)보다 4건 많은 수치임.
- 2021년 7월 조정성립률 7.1%
 - 7월 조정성립률은 전년동월 성립률 0.0%에 비해 7.1포인트 높은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7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7.	18	18	1	1	0	13	0	13	2	2	7	7.1%
2020. 7.	14	8	0	0	0	6	1	5	0	2	6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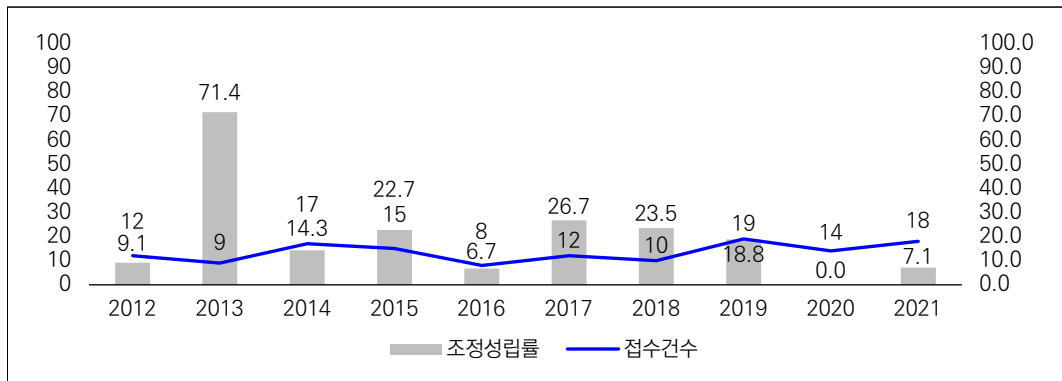
<표 2> 2012~21년 7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2. 7.	2013. 7.	2014. 7.	2015. 7.	2016. 7.	2017. 7.	2018. 7.	2019. 7.	2020. 7.	2021. 7.
접수건수	12	9	17	15	8	12	10	19	14	18
조정성립률	9.1	71.4	14.3	22.7	6.7	26.7	23.5	18.8	0.0	7.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7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 심판사건

- 2021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05건
 - 7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동월(232건)보다 27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3.2%(64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6.8%(129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7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7.	205	193	57	7	79	12	18	20	537
2020. 7.	232	188	34	6	97	13	23	15	55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4건
 - 7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건수는 전년동월(5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40.0%(2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0.0%(3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7.	4	5	2	0	0	1	2	0	10
2020. 7.	5	10	1	0	7	1	1	0	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2022년 최저임금 2021년보다 5.1% 오른 9,160원 확정

-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며 2022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했음.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서 시간당 9,160원으로, 월 환산액은 주당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임.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음.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0년 결정(1.5%, 130원)보다 높은 인상폭을 기록했다.
- 당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9,030~9,30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음. 이후 공익위원들은 9,16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음.
- 사용자위원들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퇴장해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만 표결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음.

◆ 서울시 버스 노사, 2021년 임단협 합의

○ 2021년 임금 동결, '식사 질 개선' 위한 노사 협의 등

- 7월 14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2021년 임단협을 체결했음.
- 서울시 버스 노사는 2021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음. 임금 동결에 대해 서울시버스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음. 대신 운전직은 무사고포상금을, 정비직은 개근수당을 각각 월 4만 5,000원 인상함.
- 임단협에서 주요 쟁점사안이었던 '주5일 근무제'는 8월부터 시행함. 현재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격주로 주말근무에 투입되고 있음. 운전기사가 부족해 배차와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청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음.
-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사항이었던 '열악한 식사 질' 문제는 개선을 위한 노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음.
- 교육수당 지급 조항도 신설했음. 회사에서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노동자는 19시간 내에서 교육수당을 받게 됨. 또한 순환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을 일반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음. 일반시내버스에 비해 요금이 낮은 순환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일반시내버스 운전자 대비 90% 정도의 임금만 받아 왔음.

◆ 현대중공업 19·20년 교섭, 27개월 만에 타결

○ 기본급 4만 6,000원 인상

- 7월 16일 2019년 5월 시작된 현대중공업의 2019년·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27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음.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19년, 2020년 통합교섭 3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64.6%의 찬성률로 가결됐음을 알렸음(총원 7,215명, 투표자 수 6,707명. 찬성 4,335명, 반대 2,355명, 무효 16명, 기권 1명).
-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 ▲기본급 4만 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약정임금 100% + 150만 원의 격려금 ▲2019년 성과금 약정임금의 218% *2020년 ▲기본급 5만 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노사단합행사 전환 1만 원) ▲격려금 230만 원 + 특별격려금 200만 원 ▲2020년 성과금 약정임금의 131%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 원 등임.
- 약정임금이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제외한 개념임. 최근 성과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에 따라 노사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재설정한 것임.
- 현대중공업 노사는 2021년 2월과 4월 1·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의 벽을 넘지 못했음.
- 이후 현대중공업지부는 7월 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현대중공업은 2020년 기본급을 1만 8,000원(호봉승급분, 노사단합행사 전환분 제외) 인상하는 데 합의했음.
- 해고자 4명 중 3명은 재입사 형식의 복직에 합의했으나 1명의 복직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현대자동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단체협약 잠정 합의

○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 체결

- 7월 20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1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음.
- 현대자동차 노사의 파업 없는 잠정합의안 마련은 3년 연속 이뤄진 것임.
-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 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00% + 350만 원, 격려금 230만 원, 주식 5주, 20만 포인트(20만 원 상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10만 원 지급 등을 담았음.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국내 공장·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산업 등 미래를 준비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을 체결했음.
- 노조는 2019년 한일 무역분쟁, 2020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년 연속 파업하지 않았음.

2021년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반도체 수급 문제까지 겹친 상황을 노사가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네이버 직원 절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 7월 27일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음. 노동부는 2021년 5월 네이버 본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뒤 근로감독에 착수했음.
-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에도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 신고를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음. 직속 상사가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기간 중 업무 강요를 했다는 신고에 대해 네이버는 '불인정' 처리했음.
- 노동부가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4,028명 중 1,982명(49.2%)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유롭고 수평적인 'IT 기업' 이미지와 달리 네이버의 조직문화는 폐쇄적·수직적이었음.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지난 6개월 동안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변했음. 응답자의 10.5%는 같은 기간 1주일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했음. 미응답자까지 포함해 계산해도 최소한 전체 직원 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셈임.
- 피해 경험자 중 44.1%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답했고, 59.9%는 그 이유로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음. 한 직원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뺨을 맞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이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으나 회사는 정직 8개월 처분을 하는 데 그친 사례가 있었음.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복직했지만 피해자는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음.
-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 체불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

◆ 건설현장 3곳 중 2곳은 안전장비 미흡

○ 고용노동부, 전국 건설현장 3,545곳 점검 결과 발표

- 7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3,545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2,448개(69.1%) 사업장에 안전조치 미비로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음.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총 882명 중 458명(51.9%)이 건설업 종사자였음.

- 점검 결과,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건설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음. 노동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인데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개였음. 그 외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이 382개, 추락 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347개였음.
-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복합적으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였음.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이 65개나 됐음. 6~9건은 118개, 4~6건은 468개였음. 30건가량의 지적을 받은 곳도 있었음. 이번에 점검한 건설현장은 공사 규모가 10억 원 미만으로 소규모인 곳이 86.9%였음.

◆ 제조 · 건설업 현장 60% 끼임 · 추락 ‘무방비’

○ 노동부, 전국 3,264개 현장 일제점검

-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건설업, 조선·철강 등 기타업종 현장 3,264곳에 대해 끼임·추락 위험 요인을 점검한 결과 2,094곳(64.2%)에서 관련 안전 조치가 미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 폭염과 관련해서도, 노동자들에게 물과 그늘, 휴식을 제때 제공해야 한다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이 전체 3,264곳 가운데 347곳(10.6%)이나 됐음.
- 이번 점검에선 제조업 현장 2,106곳 가운데 1,233곳(58.5%)이 끼임 방지 조치 미흡으로, 건설업 현장 1,050곳 가운데 805곳(76.7%)이 추락 방지 조치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음. 또 조선·철강업 등 기타업종도 108곳 가운데 56곳(51.9%)에서 끼임 사고 등과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이 발견됐음.
- 건설업 현장은 안전난간 미설치(54.5%), 개인 보호구 착용 불량(42.2%), 작업발판 미설치(30.7%)를 지적받은 현장이 많았음. 제조업 현장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이행(22.1%), 지게차 안전 조치 미흡(18.2%), 개인 보호구 미착용(12.4%) 등이 주로 문제가 됐음.
- 제조업은 지적을 전혀 받지 않은 현장이 41.8%였지만 건설업은 23.3%에 그쳤음. 또 지적 사항이 10건 이상인 현장도 제조업은 1.6%지만 건설업은 3.9%였음.
- 노동부는 안전 조치가 특히 불량한 4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특별기획점검(패트를 점검)을 시행하거나 산업 안전·보건 분야에 특화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임.

◆ ‘방역 번아웃’ 보건소 간호사들, 사직 1.5배로 늘어나

○ 2021년 5월 말까지 벌써 200명 떠나

- 7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건소 공무원 휴직 및 사직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사직한 공무원이 468명으로 이전 3년(2017~19년) 평균 311명보다 1.5배로 늘었음.
- 휴직자 수는 1,737명으로, 이전 3년 평균 1,243명보다 1.4배로 늘었음. 2021년도 지난 5월 말까지 벌써 200명이 사직하고, 1,140명이 휴직했음.
- 간호사들이 하는 간호직과 보건진료직만 따로 떼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이 직렬 간호사는 160명이 사직해 이전 3년 평균 108명의 1.5배로 늘었고, 휴직자도 909명이어서 이전 3년 평균(634명)에 견줘 1.4배로 늘었음. 2021년도 5월 말까지 벌써 66명이 사직하고, 580명이 휴직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800여 명 늘려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1~2차 추경을 통해 4~5개월 한시 지원인력 2,500여 명을 보건소에 배치했음.

◆ 한국타이어 노동자 백혈병 산재 인정

- 8월 9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동자 김씨(57)는 7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자신이 앓고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상 연관이 있다고 인정받았음.
- 김씨는 1987년부터 33년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며 타이어 고무를 고무 분산시키기 위한 각종 약품 혼합 작업을 해왔음. 2019년 건강검진에서 이상 증상을 최초로 발견한 뒤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났고, 같은 해 12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음.
- 김씨는 업무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해당 질환으로 이어졌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김씨의 질병이 업무에서 비롯했다고 판단했음.
- 판정위는 “과거 타이어 공장 역학조사에서 해당 백혈병과 관련해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됐고 고무산업 종사와 혈액암의 관련성이 역학 연구 결과를 통해 잘 알려진 점, 과거에 정련 공정 업무를 수행할 때 벤젠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한 점, 30년 이상 장기간 고무산업에 종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음.

◆ 석탄발전·내연차, 일자리 위기 업종 10만 명 직무전환 지원

○ 저탄소·디지털 산업구조 전환 대응, 직업훈련 강화

- 7월 2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밝혔다.
-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2034년까지 전체 58기 중 절반가량인 28기를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계획임. 내연기관 자동차는 수소차, 전기차 보급 및 판매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3%가량 늘리기로 했음.
-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 대체,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임.
- 우선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의 경우 노동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사업을 신설, 오는 2025년까지 1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음.
-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운용 중인 '장기 유급휴가 훈련' 사업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4만 명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 지원 한도도 2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상향함.
-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도 제공함. 이직자에게는 맞춤형 훈련과 연 1%의 저금리 생계비 대부 등으로 재취업을 지원함.
-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이 집중된 지역은 고용 위기에 대비, 상생형 일자리와 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통해 기업들이 신차,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대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임. 또, 철강, 정유, 시멘트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음.
-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그린 기업 혁신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제공함. 재직자에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
- 기업이 재직자에게 원격으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400만 명에게 훈련비 최대 90%를 지원하기로 했음.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디지털 역량 훈련도 포함함.

◆ 정년퇴직자 6개월 내 재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준 완화

- 8월 9일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 우선 기업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에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음. 지급 대상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정년을 맞는 재직자로 늘렸음.
- 기업별 지원 인원 한도도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에서 30%까지로 상향 조정했음. 기존에는 사업주 기준으로 최장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근로자 기준 최장 2년임.

◆ 부모 8%만 육아휴직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배

- 8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15.1%인 782만 명임. 이는 2015년 17.2%에서 계속 줄어든 것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0.5%포인트 감소했음.
- 2019년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8.4%에 그쳤음. 2019년 아동의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18.5%로, 0.5%포인트 상승한 아버지(2.2%)보다 8배 이상 높았음.
-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하고 조기복직 하는 경우도 많았음. 2010~19년 육아휴직 한 여성 중 15.6%가 1~6개월 사용에 그쳤음. 7~12개월과 25개월 이상은 각각 33.9%, 29.6%였음.
- 기업 규모별로도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가 컸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에 다니는 부모의 24.8%가 육아휴직을 썼고 대기업 부모의 24.1%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음.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각각 12.4%, 6.2%에 그쳤음.
-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육아휴직 비율이 더 낮았는데 모(母) 가정과 부(父) 가정은 각각 5%, 2%만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나타났음.

◆ 작년 노동상담, 5건 중 1건은 임금체불, 해고 및 징계

○ 코로나 여파 실업급여 문의도 늘어

- 7월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 18곳에서 지난해 진행한 상담은 모두 2만 2,366건이었음.
-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담이 전체 19.3%로 가장 많았고 해고·징계가 18.9%로 그 뒤를 이었음. 이 밖에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7.4%) △실업급여(12.8%) △퇴직금(12.4%) △근로계약(8.7%) 등의 상담도 있었음.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음. 해고·징계 상담은 전년대비 1,331건(4.7%) 늘었고 실업급여와 관련한 상담도 같은 기간 1,313건(5.2%) 늘며 눈에 띄게 증가했음.
- 상담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일반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58.6%를 차지했음. 직종별로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음.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징계·해고 상담이 23.6%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 상담이 22%로 1위를 차지했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도 증가하여 2019년 전체의 3%에 불과했던 것이 2020년엔 4.7%로 늘었음.

◆ 간호사 55%, ‘권한·책임’ 밖 업무수행

○ 46%는 근무시간 내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 많아

- 8월 7일 2021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45.8%)이 본인의 권한·책임을 벗어난 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업무 부적절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특히 간호사의 업무 부적절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간호사들은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55%를 넘었음.
- 간호사 중에서도 야간근무 전담자들의 절반(46.6%)이 업무 구분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해 부정적 평가가 높았으며,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데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6%에 달했음.
- 근무형태별로는 3교대 근무자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3교대 근무자의 동의율 49.3%는 다른 근무형태 간호사에 비해 적게는 8%포인트에서 많게는 약 13%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었음.
- 업무(직무) 범위가 명시된 문서(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등)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 14.8%로, 직무 중심의 명확한 업무 분장(Role and Responsibility)이 부재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번 조사결과, 업무 구분이 체계적이라고 평가한 간호사들의 직장생활 만족도 응답은 평균 56.2%인 데 반해, 업무 구분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평가한 간호사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평균 39.2%에 그쳤음.
 -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항목은 조직문화(25.1%p), 안전보건(24.3%p), 인사승진(22.0%p), 워라밸(15.5%p), 노동강도(14.8%p) 순이었음. 이는 업무방식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을수록 간호사들의 전반적인 직장생활 만족도가 확연하게 나빠지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 전체적으로 업무 구분이 체계적이라고 평가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업무 구분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간호사들의 번아웃 상태가 더 심각했으며, 번아웃 상태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상황이지만 업무 구분 체계성 여부에 따라 '집중하는데 어려움(19%p)'과 '자주 그만두고 싶다(15.3%p)'는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